

# “서울보다 송정역 가는 게 더 힘들어”

광주 북구 두암동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는 직장상 서울 출장이 잦은 편이다. 한 달 평균 2번꼴로 가는 출장은 곤욕이다. 송정역으로 가는 길이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을 가는 것 보다 힘든 일이 됐기 때문이다.

오전 출근 시간에 맞춰 열차를 타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로 이동하는 것이 편하긴 한데 주차장 면수가 부족한 송정역 상황을 감안하면 아예 염두도 못 낸다. 버스를 타려 해도 송정역까지 직통버스가 없는 탓에 환승을 해야 한다. 이렇다 보면 1시간은 훌쩍 지나간다. 지하철을 타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 결국 대중교통 중 가장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택시를 이용한다. 2만원에 가까운 요금을 내고 송정역으로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기만 하지 만 다른 수가 없다.

최고 시속 300km이상의 속도로 내달리는 고속열차(KTX·SRT)에 서 울 등 수도권으로 가는 시간은 단축됐지만 광주 송정역으로 가는 속도는 되레 느려지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시내버스 노선 운영과 환승위주의 교통시스템 탓에 송정역까지 접근성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송정역으로 향하는 버스 직통 노선은 20개 정

## 불편한 송정역 개선책 없나

(중) 환승 위주 대중교통 시스템

### 송정→서울 1시간 30분·광주→송정역 1시간 ↑ 직통버스 노선 부족 대부분 환승이용 시간 허비

다. 지역 전체 버스 노선 101개 가운데 약 21% 규모다. 하루 평균 160대 버스가 약 1,409회 정도 운행하고 있다.

지하철은 1일 240회, 농어촌 버스의 경우엔 3개 노선 56대의 버스가 일 평균 397회 운행하고 있다. 마을버스도 2개 노선 2대 25회 가량 송정역으로 시민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여기에 광주역에서 출발하는 광주역-송정역 구간 무궁화호 셔틀열차도 30회 운행하고 있다.

이처럼 표면상 지역 내에서 송정역으로 가는 버스 등 교통편은 결코 적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송정역으로 향하는 대중교통 시스템 대부분이 환승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 송정역 고속열차 개통 이후(2015년 4월 기준) 신설 노선은 조선

대~문화전당~광주역~전남대~경신여고~상무지구~광주송정역을 운행하게 될 '좌석 02번'과, 첨단~수완지구~광주역대~아리랑고개~영광동~송정역 구간의 '송정 33번' 2개 뿐이다.

연장 노선 역시 (진월 75번, 공항 1,000번 등) 4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기존에 운행하던 노선이다.

더욱이 현재 운행중인 송정역 직통 버스 노선 20개 중 송정역과 거리가 가까운 광산구 지역 위주로 편제된 노선은 8개에 달한다. 거리가 먼 북구(4개 노선), 남구(2개 노선), 서구(4개 노선), 동구(2개 노선)와 비교할 때 월등히 많다. 2개 노선을 운행중인 마을버스도 광산구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목적형 버스다.

거리가 먼 지역에 우선 배정돼야 할 송정역 직통버스 노선이 점차 가장 가까운 광산구에 집중되면서 나머지 지



23일 오전 열차 시간에 쫓긴 시민들이 송정역으로 가기 위해 버스 대신 요금이 비싼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송정역까지 가기 위해 버스를 갈아타거나, 인근 지하철 역까지 따로 이동하는 수고로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동하는 시간만 1시간 이상씩 소요된다.

송정역 주차장 역시 공간부족으로 자가용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에서 급한 응무나, 출장시간에 쫓기는 시민들은 결국 비싼 택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송정역의 경우 고속철도 개통 이전 최대 5,000여명에 불과한 이용객이 현재는 최대 1만 6,000명에 달할 정도로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현행 환승 위주 시스템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이다. 송정역에서 KTX를 탈 경우 광주-서울 구간이 약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시내에서 송정역까지 가는 데 1시간 넘게 걸리는 현재 대중교통 시스템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반응이다.

이와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내버스노선개편 운영에서 송정역에서 북구지역을 빠르게 연결 할 수 있는 급행버스노선을 검토했으나 이용수요가 적고 경제성이 낮아 급행버스 신설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이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 오늘의 날씨

장성	17~26	목포	17~26	곡성	16~26
담양	17~26	여수	18~24	완도	18~26
화순	17~25	광양	18~26	강진	18~26
영광	16~26	무안	17~24	장흥	18~27
함평	16~26	영암	17~24	해남	16~25
진도	17~26	신안	18~25	고흥	17~26
신안	18~25	보성	17~26		

일출 05:23 일몰 19:36  
월출 04:16 월몰 17:41

목포	만조 00:35 12:48 간조 06:04 18:20	여수	만조 07:49 20:19 간조 01:32 13:50
----	----------------------------------	----	----------------------------------

문의: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 올 여름도 폭염·열대야 기승

### 평년보다 기온 높고 강수량은 비슷

#### 광주기상청 기상전망 발표

올 여름 광주·전남 지역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져 최악의 폭염이 예상된다.

23일 광주기상청이 발표한 여름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6월 평균기온은 평년(21.3도)보다 높겠고, 7~8월에는 평년(24.7도, 25.8도)과 비슷하거나 높겠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6월 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다. 후반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거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은 날이 이어지겠다.

7월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거나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다.

8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이어지고, 대기 불안정과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최근 10년 간 광주·전남 지역 여름철 평균 기온(24.4도)도 평년(1981년~2010년·23.9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름철 강수량은 657.4mm로 평년 742.0mm보다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최근 10년 간 광주·전남지역에 나타난 여름철 열대야 일수는 평균 12일, 폭염은 평균 7일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 여름 태풍은 총 10~12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평년 수준인 2개가 광주·전남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4월까지 태풍은 총 1개로 평년 수준(1.3개)을 기록했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올해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다”고 말했다.

/유희동 기자

## 운전한 형태로 관에 담겨 수습

### 세월호 3층 지장물 제거 수색

세월호에서 운전한 사람 형태로 수습된 유골이 관에 담겨 세상 밖으로 나왔다.

23일 목포신항에서는 전남 3층 선미 좌현 객실에서 구멍조개와 옷을 입은 채 발견된 유골의 운구 작업이 진행됐다.

구멍조개와 옷을 입은 채 발견된 유골은 머리부터 발까지 한 사람의 모습을 간직한 채 이날 정오쯤 모두 수습됐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운구는 김철홍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과장의 무전 신호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유골은 성인용 관에 담겨 3층 객실에서 5층 전실 바닥까지 이어진 수색로를 따라 세월호에서 육지로 돌아왔다.

사다리차를 타고 부두로 내려온 관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장례지원반 직원에 의해 리무진 장의차로 옮겨졌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장의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제 수색 35일 만에 세월



23일 오후 목포신항 세월호 거치장소에서 미수습자 가족들이 전남 발견된 유골의 운구 모습을 접중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호에서 나온 유골을 마중했다.

현장수습본부는 운전한 형태로 나온 유골인 점을 고려해 이날 처음으로 운구 절차를 장례식처럼 진행했다.

운구에는 실제 장례에서 쓰는 관이 사용됐다. 그 전까지 발견됐던 뼈조각을 옮길 때는 국방부 유해발굴단이 맞춤형으로 제작한 나무상자를 이용했다.

유골은 목포신항 내부 임시안치실로 옮겨져 담당 검사 지휘로 검안·검시를 받고 있다.

현장수습본부는 신원 확인을 위해 유골에서 유전자(DNA) 샘플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주 본원으로 보낼 방침이다.

/심진석 기자

## 세월호 수습 휴대전화 데이터 복원

### 선조위, 3~4대 자료 일부 되살려

세월호 인양 후 선제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서 데이터 일부가 복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세월호 선제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 등에 따르면 선조위가 전문업체에 복원을 의뢰한 휴대전화 15대 가운데 3~4대에서 데이터 일부가 되살아났다.

선조위 한 관계자는 복원된 데이터에 대해 “재생이 가능한 것”이라며 “26일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보여 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몇 가지는 복원하지 못했지만 ‘실례’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며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 계속 복원을 시도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장준 선조위위원장은 “복원업체 대표를 지난 15일에 만났을 때 ‘희망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세부 내용은 아직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선조위로부터 휴대전화 복원을 의뢰받은 업체 대표는 “금요일(선조위 소위원회가 열리는 날) 일부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는 사진·영상 등 기록된 데이터가 전산규명 증거가 될 수 있어 다른 유류품과 달리 선조위로 인계됐다.

선조위는 현재까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로부터 휴대전화 45대를 인계받아 15대를 복원 의뢰했다.

/심진석 기자

민원·생활불편 제보  
☎720-1050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673-5858 (모발모발)**

시술 전

시술 후

시술 전

시술 후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대산 종합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73-14번지 1층 광주역 뒤편 중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유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010-8628-0482**